

보도시점 2026. 7. 19.(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6. 7. 17.(목)

‘지하수 생태계 생물 탐사대’ 1기 모집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지하수 생태계를 탐사하는 시민과학 교육과정 운영
-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세(중학교 1학년 기준) 이상 국민 대상 모집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용석원)은 지하수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조사하는 시민과학 교육과정인 ‘지하수 생태계 생물 탐사대’ 1기 탐사대원 30명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생태계는 동굴, 용천수, 담수 혼합대 등 지하수의 영향을 받는 생태계로, 다양한 담수생물이 서식하는 중요한 서식처이다. 그러나 조사 여건의 제약으로 생물다양성 정보가 부족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민과 함께 지하수 생태계를 조사하고 생물다양성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생태계 생물 탐사대’를 운영한다.

탐사대원은 기본교육과 현장조사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연구진과 함께 담수 혼합대와 동굴 등 지하수계 서식지에서 현장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담수생물의 서식환경 정보를 기록하며, 거주지 주변의 용천수, 동굴, 지하수 유출지 등 새로운 지하수계 서식지를 찾아내는 활동도 수행한다.

탐사대는 생물다양성에 관심 있는 12세 이상(중학교 1학년 기준) 국민을 대상으로 3년 단위 기수제로 운영되며, 이번에 모집하는 1기의 활동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다. 탐사대원에게는 시민과학자 위촉장과 활동 인증서가 발급된다.

자세한 모집 일정과 지원 방법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집(www.nnibr.re.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보전연구실장은 “지하수 생태계는 담수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중요한 서식처”라며, “탐사대 활동을 통해 수집된 생물다양성 정보는 전문가 검증을 거쳐 국가 생물자원 확보와 케이(K)-지하수 생물다양성 지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지하수 생태계 생물 탐사대 모집 홍보 포스터.
2. 전문용어. 끝.

담당 부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동식물연구부	책임자	부장	유정남 (054-530-0810)
		담당자	전임연구원	이치우 (054-530-0814)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지하수 생태계 생물 탐사대 1기 모집



탐사대 소개

• 지하수 생태계 생물 탐사대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과 함께 지하수 생태계(혼합대, 복류수, 동굴 등)의 담수생물다양성을 조사하는 국민 참여형 시민과학(Citizen science) 프로그램

• 운영방식

- 3년 단위 기수제 운영
- 기수별 30명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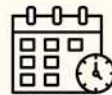


모집 안내



모집 대상

생물다양성에 관심 있는 12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참가자는 법정대리인(보호자) 동의서 제출 필요



활동 기간

1기: 2026년 8월 ~ 2028년 12월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 2026. 7. 20. ~ 31.
- 지원서, 자기소개서 제출



지하수 생태계 생물 탐사대 활동 프로세스



1

오리엔테이션

- 생물다양성 교육
- 현장 안전교육



2

발대식

시민과학자 위촉장 수여



3

탐사대 활동

- 현장조사
- 성과공유



4

기수 수료

시민과학자 활동 인증서 발급



신청 방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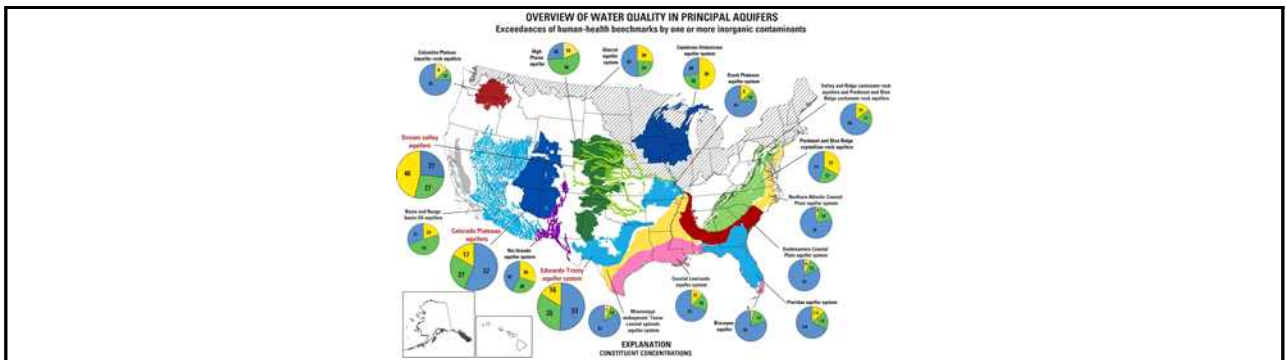
문의처

Tel. 054-530-0810, 0814
Email. cwlee@nnibr.re.kr



모집 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 시민과학(Citizen Science): 일반 국민이 연구자와 함께 생물 조사, 환경 모니터링, 자료 수집 등 과학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연구 방식이다.
- 지하수 생태계: 동굴, 용천수, 하천과 지하수가 만나는 담수 혼합대 등 지하수의 영향을 받는 생태계로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곳이다. 빛이 거의 없고 먹이원이 부족하지만 온도와 수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환경으로 지하수에 적응한 고유한 생물 군집이 형성되어 높은 생물다양성 가치를 지닌다.
- 용천수: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지표면으로 솟아 나오는 곳으로 지하수 생태계와 지표 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서식환경이다.
- 담수 혼합대(Hyporheic zone): 하천의 모래톱이나 자갈층 아래에서 지표수와 지하수가 서로 섞이는 전이지대이며, 복류수가 흐르는 공간을 말한다. 서로 다른 두 담수생태계(지표수-지하수)가 만나는 구간으로 물질순환이 활발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아 중요한 서식지로 평가된다.
- 케이(K)-지하수 생물다양성 지도: 지역별 주요 서식지와 출현 생물, 생물다양성 현황 등을 지도 형태로 시각화하여 연구·보전 및 정책 수립, 국민 대상 정보 제공에 활용하는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 플랫폼이다. 이번 탐사대 활동을 통해 국민과 연구진이 함께 수집한 생물과 서식환경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지하수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분포를 국내 최초로 시각화하여 구축할 예정이다.



<(예시) 미국 주요 지하수계별 특성 지도>